

단체수의계약 놓고 공방
골판지와 지합조합 대립

한국지합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대길)과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유현기)은 94년도 단체수의계약을 놓고 정면충돌의 위기를 맞고 있다.

양 조합은 9월 23일 94년 정부 및 공공단체 구입용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 신청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 팽팽한 줄다리를 벌이고 있다.

해마다 일어나는 충돌 때문에 91년부터 격년제로 합의해 지금까지 시행해 왔으나 93년 기협중앙회가 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지합조합으로 결정함에 따라 94년 물품계약자 지정을 둘러싸고 적대감까지 드러낼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골판지조합측은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관련 5대 국책연구기관에 의뢰, 골판지 상자의 주된 업종은 골판지업계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놓았으니 지합조합측은 내년도 수의계약을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지합조합측은 '업계의 분명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업계질서를 물란케하고 지합업계보다 강하다 하여 횡포를 자행한다면 모든 법률과 결속력을 통해 응징할 것이다'라고 대응하고 있어 사태는 심각하다.

현재 국내 골판지 상자의 생산비율은 골판지업계가 75%, 지합업계가 25%를 점유하고 있다.

아시아리사이클회의 참석
EPS재활용협회, 7~8일 도쿄 회의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회장 이덕림)는 수출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스티로폴 포장재에 대한 외국의 회수 의무화에 대비, '국제EPS포장재재활용협약'의 가입 및 국제 재활용 협력을 위하여 이번 12월 7, 8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아시아리사이클회의'에 참석키로 하였다.

이어서 내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EPS 리사이클회의'에도 참가하여 가입할 계획.

가입 후에는 EPS 포장재에 대하여 EPS 원산국에 관계없이 각 회원국의 협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수출 장애가 없어지게 된다.

아시아 리사이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8개국이 참가하며 현재 EPS 리사이클링에 관한 국제 협력 현황 보고, 각국의 리사이클링 상황보고, 국제 EPS 포장재 리사이클링 협약의 실천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합조합 전무이사 새로 선임

지난 10월 26일 한국지합공업협동조합은 제7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강종찬 전무이사를 선임했다.

강종찬 전무이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상임이사를 거쳐 한국조미료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강종찬
지합조합 선임 전무이사

중기협동화단지 조성사업 차질

4개단지 가운데 3개 착공도 못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및 시설공동이용을 위한 중기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에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중진공이 올해 추진기로 한 4개 중소기업협동화사업단지 가운데 인천 도금폐수 협동화단지만 건축공사를 시작했을 뿐 경북 칠곡연사단지 등 3개 협동화단지가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1년에는 부산 모리아파트형 공장 등 13개 협동화단지 조성이 착수됐고 지난해에는 광주 전기전자부품단지 등 6개 단지 조성이 시작되는데 비해 올해는 4개 단지만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지난해 착수된 경기 포천 전기전자단지 등 2개 단지는 아직 건축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

올들어 협동화단지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공단설립 인허가절차를 밟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데다 공단조성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공단조성 동의를 받아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스틱 연구조합 정식 인가

업계 공동에로기술 중점 연구

한국프라스틱기술연구조합(이사장 이국노)이 과학기술처의 정식인가를 받아 발족하였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주축이 돼 지난 8월 창립총회를 가진 기술연구조합은 정부의 인가를 받고 지난 11월 17일 현판식을 가졌다.

기술연구조합은 내년에 첨단기술 및 연구장비를 도입, 국내플라스틱 업계의 공동 에로기술을 중점 연구하게 된다.

기계조합 자체회관 마련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홍평)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341의 12에 자체 사옥을 마련하고 지난 11월 11일 오후 회관입주식을 가졌다.

이 회관은 대지 90평, 건평 2백37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산하 지방조합이 출자한 3억원과 단체수의계약 수수료를 모아 9억5천만원에 구입한 것이다.

기계조합은 회관 1층에 자료실을 마련, 조합원업체의 카탈로그 등을 전시하고 컴퓨터를 통한 정보제공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APD, 4개국 디자이너 전시

260여개 작품 전시

아시아패키지디자인전이 지난 11월 3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1일까지 전시회 및 세미나 등 다채롭게 펼쳐져 비교적 성황을 이뤘다.

수개월간의 준비과정 끝에 결실을 맺게 된 이번 전시회는 한국측 APD 실행위원이 주최하고 (주)한국플라가 후원하였는데, 4개국 패키지 디자이너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전야제에서 김광현 APD 운영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아시아 포장 발전에 굵은 획을 긋는 훌륭한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시아패키지디자인전은 11월 4일 개막식과 함께 5일부터 11일까지 KOEX에서 4개국 260여 작품이 전시되었다.



▲한국·일본·상해·대만 등 아시아 4개국이 참가한 아시아패키지디자인전이 지난 11월 4~11일까지 열렸다. 사진은 전야제 장면.